

# SAEROUN QT

2026  
07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시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Saeroun  
church

##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2009년 창립한 우리 새로운교회(2009년도에 세워진 가든파이브와 탄생한 시기가 같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집을 찾지 못하고 두 번씩 장소를 옮겨 가면서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면서 교회 간판도 제대로 달지 못하고 16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었던 까닭에 건축에 그렇게 목매지 않았지만,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제 더 이상은 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전 건축이 단순히 담임 목사의 열심이 아닌 온 교회가 함께 필요를 공감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 신년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지난 10년간의 특별새벽기도회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년의 특새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CGV가 철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로들과 몇몇 실무팀 집사들과 함께 현장을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바로 여기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릴 위해 예비하신 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개월 안에 매입 절차를 끝내고, 철거 해체 공사와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작년 11월 7일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패션관 입당 예배를 드렸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7월 4일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정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이 이렇게 한국 교계와 일반 사회의 큰 관심을 받을 줄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개척하여 상가에 임대해 있다가 교회가 커지면 땅을 사서 건축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집합상가 건물을 개조해서 들어오는 건축을 하니 까다롭고 놀라셨나 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이나 바다, 외진 곳에 사찰을 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도 이 사명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백 년 전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이 세운 마을들이 오늘날 미국 북동부, 남부 지역 도시들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당시는 모든 마을의 중심에 광장이 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재판소, 시청사, 학교, 병원, 장사하는 가게들이 둘러싸고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그 마을의 질서를 잡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항상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었고,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명철하고 올바르게 자랐습니다. 그것이 부강한 나라 미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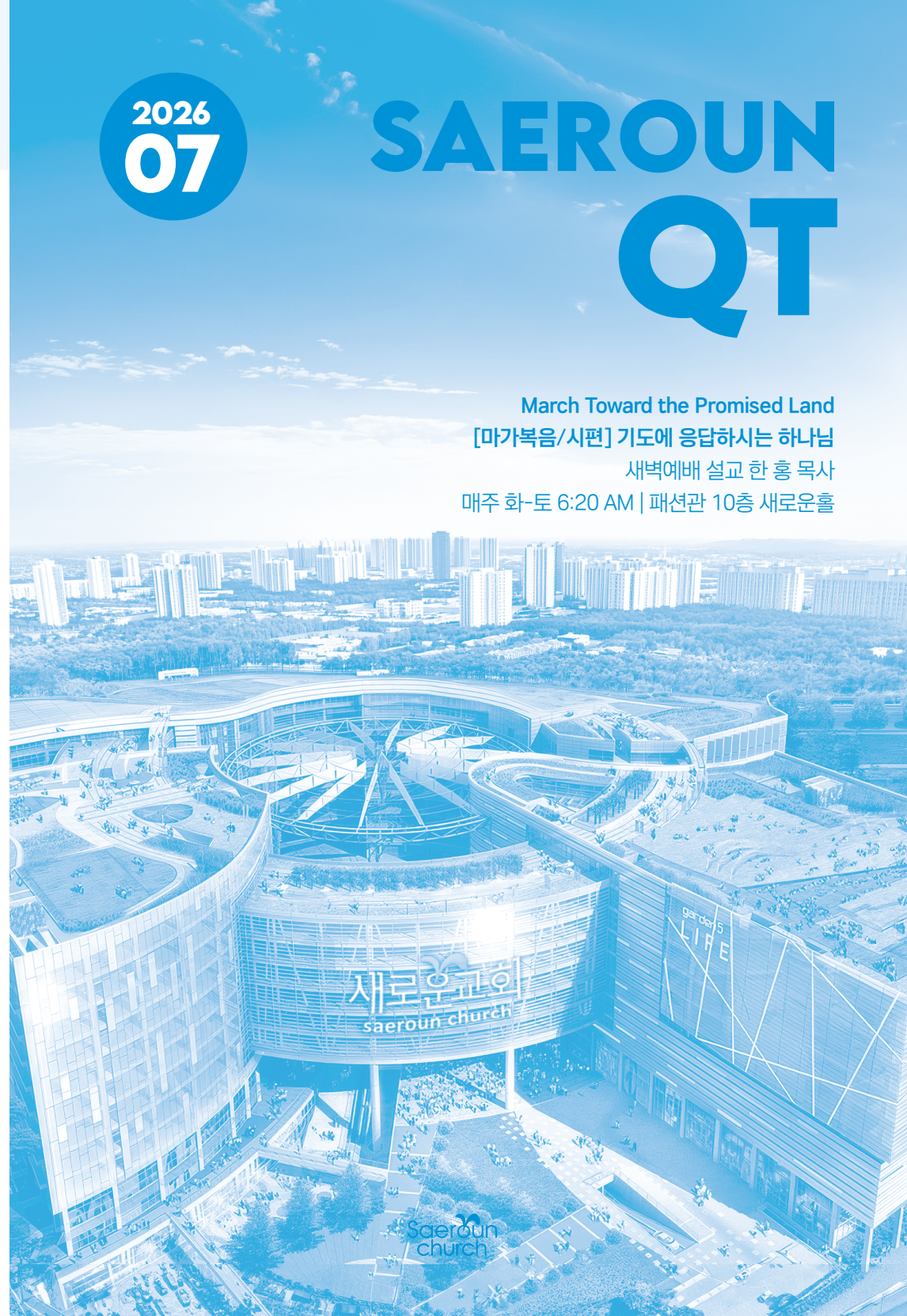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가 가든파이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간 전체에 새로운 활기와 따뜻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활발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넘쳐 나는 곳. 지역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예술 공간.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꼭 한 번 와 보고 싶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K-처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교회의 부흥의 시즌2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하며 약속의 땅으로 감사하며 춤추며 들어가십시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홍*



#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시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2026.  
07

# SAEROUN

주일	월	화	수
28	29	30	1
5	6	7 7/7~18 새 성전 입당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마라클랜드'	8
12	13 7/13~17 베트남 단기선교	14	15
19	20	21	22
26	27 7/27~8/1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28	29
CES 멘티 수료식			

# QT

목	금	토
2	3	4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
9	10	11 7/11~12 뉴젠 Kids 성경학교
16	17 제헌절	18 7/18~19 미취학(영아,유아, 유치) 연합 성경학교
23	24 금요찬양예배 7/24~26 청년연합 여름수련회	25
30	31 7/31~8/2 학령기(아동, 유년,초등) 연합 성경학교	1

**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6. 07

1	수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막 12:38-44
2	목	끝까지 견디는 믿음	막 13:1-13
3	금	환난 중에 오실 주님	막 13:14-27
4	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막 13:28-37
5	주일	새로운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겔 47:1-12
6	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 7:37-39
7	화	<b>D-1)</b> 에덴: 기쁨의 땅	창 2:4-14
8	수	<b>D-2)</b> 에덴: 사람이 경영하게 하신 땅	창 2:7-9 & 2:15-19
9	목	<b>D-3)</b> 베들레헴: 은혜의 빵집	룻 1:19-22
10	금	<b>D-4)</b> 베들레헴: 거룩한 반격의 시작	마 2:1-12
11	토	<b>D-5)</b>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대상 11:4-9 & 시 122:1-9
12	주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막 1:1-8
13	월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 40:1-8
14	화	<b>D-6)</b> 예루살렘: 사랑하고 지켜야 할 도시	대상 11:4-8 & 시 122:1-9
15	수	<b>D-7)</b> 길갈: 역사의 터닝 포인트	수 4:1-9
16	목	<b>D-8)</b> 길갈: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	수 4:1-9
17	금	[제헌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시 33:12-22
18	토	<b>D-9)</b> 갈릴리 가버나움: 미라클 랜드	사 9:1-2 & 눅 4:31-44
19	주일	세례를 받으시다	막 1:9-11
20	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사 42:1-9
21	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시 62:1-12
22	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시 63:1-11
23	목	악인의 꾀를 꺾으시는 하나님	시 64:1-10
24	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 65:1-13
25	토	찬양의 이유되시는 하나님	시 66:1-7
26	주일	시험을 받으시다	막 1:12-13
27	월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신 8:1-6
28	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시 66:8-20
29	수	온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 67:1-7
30	목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시 68:19-35
31	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69:1-12

# 새로운 QT

##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 중보기도의 순서

####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순예배시

####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막 12:38-44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As he taught, Jesus said, "Watch out for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be greeted with respect in the marketplaces,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engthy prayers. These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two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ew cents.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all she had to live o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02

목요일

## 끝까지 견디는 믿음

막 13:1-13

-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 3 예수께서 감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 4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 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 7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 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 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새로운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겔 47:1-12

-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entrance to the temple, and I saw water coming out from under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oward the east (for the temple faced east). The water wa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south of the altar.

-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He then brought me out through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the outside to the outer gate facing east, and the water was trickling from the south side.

-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As the man went eastward with a measuring line in his hand, he measured off a thousand cubits and then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ankle-deep.

- 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He measured off another thousand cubits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knee-deep. He measured off another thousand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up to the waist.

- 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He measured off another thousand, but now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cross, because the water had risen and was deep enough to swim in—a river that no one could cross.

-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He asked me, "Son of man, do you see this?" Then he led me back to the bank of the river.

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When I arrived there, I saw a great number of trees on each side of the river.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He said to me, "This water flows toward the eastern region and goes down into the Arabah, where it enters the Dead Sea. When it empties into the sea, the salty water there becomes fresh.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Swarms of living creatures will live wherever the river flows. There will be large numbers of fish, because this water flows there and makes the salt water fresh; so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Fishermen will stand along the shore; from En Gedi to En Eglaim there will be places for spreading nets. The fish will be of many kinds—like the fish of the Mediterranean Sea.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But the swamps and marshes will not become fresh; they will be left for salt.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Fruit trees of all kinds will grow on both banks of the river. Their leaves will not wither, nor will their fruit fail. Every month they will bear fruit, because the water from the sanctuary flows to them. Their fruit will serve for food and their leaves for healing."





SAEROUN QT

08

수요일

# 에덴: 사람이 경영하게 하신 땅

창 2:7-9 & 2:15-19

2026 새 성전 입당 기념 특새 “미라클 랜드”

D-2

### [창 2:7-9]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out of the ground—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and good for food. In the middle of the garden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 [창 2:15-19]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from it you will certainly die.”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Now the LORD God had formed out of the ground all the wild animals and all the birds in the sky. He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name them;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that was its na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베들레헴: 거룩한 반격의 시작

마 2:1-12

2026 새 성전 입당 기념 특새  
“미라클 랜드”

# D-4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  
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during the time of  
King Herod, Magi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  
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and asked,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disturb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  
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When he had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he asked them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In Bethlehem in Judea," they replied, "for this is what the  
prophet has written: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But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Then Herod called the Magi secretly and found out from  
them the exact time the star had appeared.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He sent them to Bethlehem and said, "Go and search  
carefully for the child. As soon as you find him, report to  
me, so that I too may go and worship him."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  
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After they had heard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ahead of them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  
라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  
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  
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And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they returned to their country by another rout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막 1:1-8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And so John the Baptist appeared in the wilderness,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out to him.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John wore clothing made of camel's hair,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And this was his message: "After me comes the one more powerful than I, the strap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 40:1-8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proclaim to her that her hard service has been completed, that her sin has been paid for,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4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rough ground shall become level, the rugged places a plain.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and all people wi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A voice says, "Cry out." And I said, "What shall I cry?" "All people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faithfulness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ecause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on them. Surely the people are grass.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endures forev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예루살렘: 사랑하고 지켜야 할 도시

대상 11:4-8 & 시 122:1-9

[대상 11:4-8]

4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6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7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8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증수하였더라

[시 122:1-9]

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와 지파들이 여호와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길갈: 역사의 터닝 포인트

수 4:1-9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When the whole nation had finished crossing the Jordan, the LORD said to Joshua,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Choose twelve men from among the people, one from each tribe,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and tell them to take up twelve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from right where the priests are standing, and carry them over with you and put them down at the place where you stay tonight.”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So Joshua called together the twelve men he had appointed from the Israelites, one from each tribe,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and said to them, “Go ov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your God into the middle of the Jordan. Each of you is to take up a stone on his should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to serve as a sign among you. In the future, when your children ask you, ‘What do these stones mean?’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tell them that the flow of the Jordan was cut off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hen it crossed the Jordan, the waters of the Jordan were cut off. These stones are to be a memorial to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So the Israelites did as Joshua commanded them. They took twelve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as the LORD had told Joshua; and they carried them over with them to their camp, where they put them down.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Joshua set up the twelve stones that had been in the middle of the Jordan at the spot where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had stood. And they are there to this da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시 33:12-22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the people he chose for his inheritance.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From heaven the LORD looks down and sees all mankind;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from his dwelling place he watches all who live on earth—

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he who forms the hearts of all, who considers everything they do.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No king is saved by the size of his army; no warrior escapes by his great strength.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A horse is a vain hope for deliverance; despite all its great strength it cannot save.

18 여호와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But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ose who fear him, on those whose hope is in his unfailing love,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keep them alive in famine.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We wait in hope for the LORD; he is our help and our shield.

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In him our hearts rejoice, for we trust in his holy name.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May your unfailing love be with us, LORD, even as we put our hope in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 갈릴리 가버나움: 미라클 랜드

사 9:1-2 & 눅 4:31-44

2026 새 성전 입당 기념 특새  
“미라클 랜드”

# D-9

### [사 9:1-2]

-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 [눅 4:31-44]

- 31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 32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 34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 3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 36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 37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 38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 39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 40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 41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 42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세례를 받으시다

막 1:9-11

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A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Just as Jesus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and the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on page 47.

SAEROUN QT

# 20

월요일

##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사 42:1-9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Here is my servant, whom I uphold, my chosen one in whom I delight; I will put my Spirit on him, and he will bring justice to the nations.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He will not shout or cry out, or raise his voice in the streets.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a smoldering wick he will not snuff out. In faithfulness he will bring forth justice;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he will not falter or be discouraged till he establishes justice on earth. In his teaching the islands will put their hope."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This is what God the LORD says— the Creator of the heavens, who stretches them out, who spreads out the earth with all that springs from it, who gives breath to its people, and life to those who walk on it: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I, the LORD, have called you in righteousness; I will take hold of your hand. I will keep you and will make you to be a covenant for the people and a light for the Gentiles,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to open eyes that are blind, to free captives from prison and to release from the dungeon those who sit in darkness.

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I will not yield my glory to another or my praise to idols.

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See, the former things have taken place, and new things I declare; before they spring into being I announce them to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시 62:1-12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  
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  
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  
주로다 (셀라)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  
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  
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9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  
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  
어다

11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  
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 26

주일

## 시험을 받으시다

막 1:12-13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wilderness,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and he was in the wilderness forty days, being tempted by Satan. He was with the wild animals, and angels attended him.

SAEROUN QT

27

월요일

#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신 8:1-6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you may live and increase and may enter and possess the land the LORD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and your feet did not swell during these forty years.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Know then in your heart that as a man disciplines his son, so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Observe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walking in obedience to him and revering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69:1-12

- 1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 2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 5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 6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 7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 8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 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 10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 11 내가 굶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 12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6.  
07

# 약속의 땅 간증

01

1. 최지훈 목사
2. 김대훈 목사
3. 이태승 집사(W강남공동체)
4. 류재준 장로(우면공동체)
5. 김효선 집사(E강남공동체)
6. 김경태 집사(N서초공동체)
7. 임채욱 성도(N강남공동체)
8. 이경희 성도(N강남공동체)
9. 김동훈 장로(W서초공동체)
10. 고희한 집사(E강남공동체)
11. 김중제 장로(C강남공동체)
12. 이희창 집사(S서초공동체)
13. 이원구 장로(E강남공동체)

## 약속의 땅은 기적의 땅입니다

최지훈 목사



은 성도가 10년을 기도해 왔던 약속의 땅을 발견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입당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이 경이로운 결과 앞에 설명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올 수 없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든파이프 영관을 찾게 하시고 감춰져 있던 패션관의 매입 길을 여신 일, 구청의 행정 절차와 임시사용 승인이 통과된 일, 각 분야의 전문 위원들을 붙여주신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장비와 가구를 채우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건축 헌금과 외부의 격려, 언론의 주목과 상인들의 기대, 가장 합리적인 대출 과정까지 뒤를 돌아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실 행정목사로 처음 교회 건축에 참여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건축 용어들 속에서 회의가 끝나면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가듯 시간이 흐르며 저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건축 문외한인 저에게 이 거룩한 성전 건축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

리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은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극적인 돌파구를 주시는 것을 보며 제 안의 두려움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도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건축의 과정은 결국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위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 기간 중 아버지가 위독하시며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성도님들의 뜨거운 중보기도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개인의 기적 또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입당을 준비하며 매주 가든파이프의 상인들을 만날 때,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새로운교회 회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25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바쁜 생업으로 예배를 잃어버렸다며 갈급해하던 한 식당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하나님이 사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이 가든파이프로 직접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릴 때, 사장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든파이프 약속의 땅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파송하셨습니다. 이곳을 거점 삼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복음의 항공모함으로 우리 새로운교회를 사 용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 약속의 땅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김대훈 목사



학창시절부터 제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대학교 건축과에 진학한 20대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아침 일찍 기도모임을 한 후에

매일 새벽 2시까지 스튜디오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스튜디오의 불을 켜고, 누구보다 늦게 스튜디오의 불을 껐습니다. 덕분에 꾸준히 실력을 키우며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꾸준히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0세가 되던 해에 목회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지만 제 안에 궁금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더 일찍 콜링 해주셨다면 목회자로서 더 많은 소양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을까? 20대의 10년 동안 왜 하나님은 목회와 상관없는 건축을 그토록 열심히 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그런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약속의 땅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 큰 간증거리였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은 약속의 땅 프로젝트를 통해 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기적’처럼 이뤄지는 것을 바로 눈앞의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바로 눈앞의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감사였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던 시간들은 제게 거룩한 영적 양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영적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10년의 기도를 통해 ‘약속의 땅’을 ‘기적의 땅’으로 새롭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 예배의 자리를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

이태승 집사(W강남공동체)



시공사가 선정된 후 인 작년 9월 중순부터 약속의 땅 추진 위원회에 기술위원으로 활동하며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새로운교회 그

리고 동행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약속의 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로 미약하지만 교회건축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 프로젝트는 단 9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기존 CGV시설 해체, 철골구조 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된 기간에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체착공, 해체공사완료, 본공사착공, 임시사용승인, 최종사용승인 등의 각각의 단계별 인허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가든파이브라는 집합건물에서의 부분 임시사용승인은 소방서 승인을 받아내기 정말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인허가였습니다.

하지만, 오천 성도의 기도와 중보기도팀의

집중 중보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인·허가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실무자들에게 관청을 설득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계획된 일정 내에 완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존 시설이 예배의 처소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깊이 확인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친히 주관하여 세우 가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이후 새로운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예배의 자리에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더 깊은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여 이곳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공간을 친히 세우시고 채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10년의 여정,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류재준 장로(우면공동체)



새로운교회는 창립 때부터 건축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축복이 되어야 할 건축 과정 속에서

재정적 위기를 겪고, 끝내 분열되는 아픔을 보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터널을 거치며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을 찾아 건물을 짓는' 과거의 방식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경험 가운데 철저히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교회의 창립 때부터 이미 예비해 두신 곳이 있었고, 그 곳은 예배 공간, 나눔과 섬김의 공간, 업무 공간, 그리고 주차 공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재정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처소를, 주님의

때가 차매 단숨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끝에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눈앞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계산과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광야 같은 10년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지친 사역의 걸음마다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신 담임목사님, 그리고 한마음으로 울고 웃으며 제단을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년 사개월만에 매입과 인허가 그리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교회를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드린 추진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직접 지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 처소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로 새 성전을 채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김효선 집사(E강남공동체)



오랫동안 부동산 분야에서 일했던 저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고, 왜 계속 이 자리에 두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돈과 정치의 논리가 얽혀 있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제 생각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특새 직후 교회에서 약속의 땅 추진위원회로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흘러가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진위원회 첫 만남부터 입당예배까지 483일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던 순간들, 마음이 덜컥 내려앉던 아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직접 바꾸셨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게 지혜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서조차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 가운데 의견이 갈릴 때마다 장로님들과 위원들이 기도으로 그 간극을 메워가는 모습과 말씀과 일치하는 한홍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함께 중보 했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직접 지어 성취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랜 기도제목을 안고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버티게 하신 이유는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제 시작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버티는 우리에게 지금 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김경태 집사(N서초공동체)



이번 건축을 돌아보며 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찾았던 건물과 부지가 작년 특별새벽기도 회 직후 3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열렸고, 매입계약과 대출, 소유권 이전, 그리고 1년 여의 공사를 거쳐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건물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는 없을 텐데” 하는 놀라움이 들 만큼 막힘없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물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Way Maker’ 그분께서는 교회 창립 때부터 이곳을 예비하셨고, 그 건축을 감당할 사람들과 재정은 오래전부터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공사 시간은 짧았지만 사람을 다듬으시고 재정을 준비시키신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저 역시 그분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 안에서 조용히 다듬으시며,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 작은 화살 하나로 준비해 오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 성전의 돌들이 다른 곳에서 미리 다듬어져 옮겨졌기에, 정작 건축 현장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

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매입과 재정, 법률과 세금, 시행과 시공, 감리와 인허가, 인테리어와 음향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다듬으신 지체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고, 모두가 겸손과 순종으로 한 과녁을 향해 묵묵히 맡은 바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듬으심의 또 다른 결로, 여러 판단과 조정과 수고가 있었음에도 큰 불협화음이나 안전사고 없이 성전건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건물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며, 복음의 빛이 세상과 열방으로 뻗어나갈 교두보가 세워졌다는 데에 더 큰 의미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건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완공 이후에도 식지 않고 여전히 그분 손에 붙들린 한 자루의 화살로 남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는 더 큰 순종과 헌신의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약속의 땅’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다

임채욱 성도(N강남공동체)



저는 애틀랜타의 부동산 회사에 다니며 낡은 교회를 헐고 새로 짓는 건축위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전 홀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아쉬

움이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교회의 약속의 땅을 위해 저를 미국에서부터 미리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2025년 특새 마지막 날(3월 1일)로부터 닷새 후, 예전 직장 후배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연락은 특새가 끝나기 전인 2월 27일에 이미 와 있었고, 우리는 3월 6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가 완성되기도 전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배는 “영화관 12개를 매각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쉽지 않다”고 했고, 그 순간 ‘영화관도 교회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12개 중 서울에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제가 잘 아는 송파 CGV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1,500~2,000억 원이 소요될 터, 부동산 전문가인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즉시 공유하였고, 그날 밤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저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영화관을 방문하며 현장을 살피던 중 영화

관과 이어진 패션관 10층에 SH 명의의 빈 공간을 발견하였고, 교회 측의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결과 매각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당침 확률을 높이려고 교회 및 교회 관련 법인 두 곳을 더해 3개 법인 명의로 응찰했습니다. 그러나 총 6곳이 참여한 경쟁 입찰에서 교회나 교회 관련 법인이 아닌 M법인에 낙찰되어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의 방법을 쓰려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낙찰자 발표 몇 시간 후, M법인 대표자가 제게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예식장 측이 프리미엄을 줄 테니 팔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교회가 가져가는 것이 상가 활성화에 낫겠다며 양도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낙찰 실패라는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약 2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5년 7월 24일, 패션관 매입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2026년 7월 4일 입당감사예배, 7월 5일 첫 주일예배—지난해 3월 6일의 그 만남으로부터 꼭 1년 4개월 만의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송파 가든파이에 새로운교회를 완전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작은 이민자 교회에서 시작된 훈련부터 모든 것이 오직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의 전문성을 당신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제게 허락하신 부동산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새로운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거룩한 여정에 끝까지 쓰임 받는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함께 세워 가신 하나님

이경희 성도(N강남공동체)



지난해 가을, 약속의 땅 기술위원으로 콜링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설레기도 했습니다. 미천한 재능이

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뭉뚱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지어져 가는 과정을 가까이서 목도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기도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는 동시에 저를 만지시며, 건물이 완성되

어 가는 만큼 제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는 건물이 아닌,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곳에서 올려질 예배와 기도, 이곳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도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동시에 저를 세워 주셨듯이, 앞으로도 약속의 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자녀로, 이 시대 가운데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

김동훈 장로(W서초공동체)



25년 신년 특새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3월 9일(주일)로 기억합니다. 가든파이버 내 CGV가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영업 중이었던

CGV를 담임목사님과 위원분들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복합시설 내 상영관이 많은 극장이다 보니 본당 층고가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건축을 모르는 저는 이 공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설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법률,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며 급진전을 이루기 시작했고, 어느덧 영관 매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관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는 공간이었는데 마침 바로 옆 패션관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까지 기적처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시공사 선정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으며, 어느덧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 영상/음향/중계 및 인테리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들은 본인들의 본업 이상으로 헌신하며 일해주신 덕분에 많은 부분을 신뢰 안에서 함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었

는데, 서로 이해하며 화평을 위해 힘쓴 모든 위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난관과 허들이 있었으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우리 실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함께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추진위원회 70번의 회의를 거쳐 1년 3개월 만에 이제 입당을 앞두고 보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은혜였고 감사였다고 말하는 그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그 받은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벽들을 쌓아가는 것을 배웠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된 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항공모함 새로운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교회에 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

고용한 집사(E강남공동체)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허락하신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서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전체적인 동선과 예배의 흐름, 안전과 기술적인 부분, 음향과 조명, 중계와 영상 시스템의 활용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끝없이 보였습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보였고, 인간적인 염려와 부담도 커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한 가지 말씀만을 반복해서 새겨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감동과 함께 예배소에서 4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술적인 탁월함이나 능력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과 상황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은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막혀 보이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우신 새로운교회를 사랑하며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예배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편히 사용하시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김중제 장로(C강남공동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보여주옵소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를 비롯하여 성남, 하남, 판교, 과천 일대까지 정말 수많은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건

물을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곳들을 검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NO”라고 응답하셨고, 어떤 곳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조건은 맞는 것 같았지만 계약이 막히기도 했고, 기대했던 장소가 갑자기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025년 특별새벽기도 40일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든파이프 영관 CGV 영화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약속의 땅 TF팀은 ‘약속의 땅 추진위원회’로 재구성되었고, 추진위원회가 함께 가든파이프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이 확신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관 10층과 11층 계약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옆 패션관 10층까지 매입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송파구청에 용도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공간이 이미 문화집회 시설로 되어 있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각 분야마다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허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각 기관과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두신 사람들을 통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들이 이어졌습니다.

건축 자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축 총예산의 약 절반 가까이는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매년 예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절약하며 준비해 온 헌신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주거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하여 대출로 채워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약속의 땅을 매입하고 잔금을 모두 납입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늘 이렇게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끝으로 약속의 땅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희창 집사(S서초공동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일한 지 9년이 되었고,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가든파이프 패션관과 영관에 관한 법률실사(實査), 매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서 내용 검토, 전반적인 법률자문, 등기 및 취득세 감면신청 등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커리어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시니, 안전함이 누리집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10분 시작된 70여 차례의 추진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목사님들의 헌신과 기도, 장로님들의 교회를 향한 섬김과 본, 위원님들의 덕을 세우

는 언행들을 통해 연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 시대 새로운 시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로 채우신 삶, 하나님께서 편히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완벽하게 앞서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원구 장로(EG강남공동체)



10년의 특새가 끝나 자마자 적합한 약속의 땅 후보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약속의 땅 위원들은 주일 4부 예배 후 곧바로 가든파이를 방문했다. 천천히 이곳저곳 살펴보고 옥상정원에 올라 사방으로 펼쳐 보이는 장관을 보며 모두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군요. 2025년 3월 벽찬 감동과 함께 그렇게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곧바로 약속의 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 매입전략, 세무절세방안, 자금조달 계획, 철거 및 설계와 시공, 관계기관 인허가 추진 등 약속의 땅 프로젝트가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뜻하지 않은 장벽과 난관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예비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하게 하셨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철거와 시공,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필요한 타이밍에 대출이 승인되고, 한 번에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임시 사용승인 및 준공허가를 득하기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온성도가 한마음 되어

올려드리는 뜨거운 기도에 힘입어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며 전율과 감동,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왔다.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제휴업체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협조적인 가든파이브 관리단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도 36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며 축적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맘껏 활용하여 섬기는 기회가 되었고, 수많은 회의와 업무진행을 위해 막대한(?) 시간을 들여야 했는데 마침 정년퇴직을 앞두고 임금피크대상이 되어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약속의 땅 추진위원과 실무위원으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만나 동고동락하며 동역하게 된 것, 무엇보다 온교회가 분열과 혼란 없이 한홍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이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다. 새로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대로 새로운교회가 이 땅의 부흥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내일을 꿈꾸며, 우리의 기대를 넘어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앞서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



2026.  
07

# 에버그린 스쿨 / 야유회 간증

02

1. 김신숙 성도(강북공동체)
2. 강진권 성도(C강남공동체)
3. 황선자 성도(C강남공동체)
4. 고경호 성도(S강남공동체)

##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김신숙 성도 (강북공동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 4:16)

제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주 안에서 제 속사람은 오히려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스쿨에 오기 전에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에버그린 스쿨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통해 마음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제 안에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솟아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는 고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은 늘 제 안에 계셨고, 제 손을 잡고 계셨지만 제가 그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은혜라는 고백뿐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완벽할 순 없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믿음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 한 번 동기는 영원한 천국 동기

강진권 성도 (C강남공동체)



7주간의 에버그린 스쿨은 단순한 만남과 교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담당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말씀과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며 익숙해졌던 신앙이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커피브레이크 방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었기에,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믿음의 교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온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은 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온 환경도, 직업도 달랐으며 인생의 기쁨과 아픔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하였고, 이제는 세상 친구를 넘어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뛰놀던 친

구와 동기들이 이제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경제와 금융에 관한 강의는 신앙과 현실의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배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넓어졌고, 신앙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육신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 믿음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삶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신, 한 홍 담임목사님과 담당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신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귀한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한 모든 선후배, 동기,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에버그린스쿨을 통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 동기는 영원한 천국 동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에버그린 스쿨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

황선자 성도(C강남공동체)



작년 5월 말 이사 후 올해 1월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공동체 모임인 순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장님께서 순원 모두 함께 양육 프로그램인 에버그린스쿨에 참여

하고, 같은 날 순 예배도 드리자고 권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별로 편성되어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준비 찬양과 은혜로운 특송으로 마음을 열고, 이어서 담당 목사님의 '바울의 옥중서신\_골로새서' 개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인도자님을 중심으로 조별 나눔과 학습이 이어졌는데, 매시간 풍성한 간증들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마지막에는 담당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요약 정리해 주셔서 배운 내용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잘 정리되어 참 좋았습니다. 3주간 골로새서 강의를 듣고 3주는 다른 부목사님들의 특강 또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마치고 함께 별미도 시락을 먹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특강으로 들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 그 400년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신 기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으며, 복음이 전해질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의 암흑기에도 영적인 인프라를 깔고 길이 열릴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리와 겸손과 신앙을 중시했던 가문이 외부적 요인보다 무절제한 생활과 다음 세대 양육 실패로 무너져 갔다는 점이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의 본질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가정, 삶의 절제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 가도록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골로새서의 은혜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역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믿음 위에 더욱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 연합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고경호 성도(S강남공동체)



2026년 1학기 7주간의 에버그린 스쿨을 통해 입은 은혜와 감동이 참으로 큼니다. 그동안 여러 해, 봄 가을에 스쿨에 참여하면서 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입어 왔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버그린 성경 공부가 깊은 우물에서 떠 올리는 생수같이 느껴짐은 커피 브레이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질문을 통해 서로 답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구절에 담긴 진리를 내 눈으로 마음으로 직접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부분을 발표하며 이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니 말씀 속에 담긴 영적 지혜와 나아갈 길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3주 동안 골로새서 1장과 2장 말씀을 깊이 있게 고찰했고, 나머지 3주 동안은 신구약 중간기, 이태리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그리고 컬처 코드(Culture Code)라는 세 가지 주제로 귀한 특강을 듣고 '화려한 외출' 광릉수목

원 여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동시에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며 하나님의 섭리를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참으로 지적이고도 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이 있었기에 시니어 동년배 지체들과의 만남은 더욱 귀한 시간이었으며 매주 모여 앉아 진리를 찾기 위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번 모임을 통해 저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연합을 목도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 간사님, 팀장님, 총무님, 인도자님 그리고 특강 목사님들과 찬양 목사님, 반주자님, 매주 함께해 주신 권사님의 찬양 사역까지 더해져 각자의 자리에서 아낌없는 헌신을 보았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우리 교회에 많은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6.  
07

# 마더와이즈 간증

03

1. 전미준 권사(강북공동체)
2. 김지선 성도(C강남공동체)
3. 이기화 집사(W강남공동체)
4. 김인경 성도(W서초공동체)



## 회개의 눈물, 회복의 시작

전미준 권사(강북공동체)



저는 30살이 된 아들과 28살이 된 딸을 둔 마더와이즈를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과 화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혹' 들어와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딸이 중 2가 되면서부터 딸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엄마로서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딸아이와의 관계는 삐걱거렸고,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방문을 닫아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딸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딸이 울면서 “엄마는 우리를 단 한 번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준 적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순간 돌에 맞은 것처럼 아득해졌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목상부터 저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과 사랑의 챗터에서 과연 나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가지인가, 사랑의 양동이에 주님의 사랑과 용납과 안정감으로 충만한가, 새 부대에 담을 새로운 사고방식과 태도, 행동이 준비되었는가를 묵상하고 있는 동안 참고 있던 눈물

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심,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욕심, 수동적인 욕심, 종교적인 욕심,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욕심, 자기중심적인 욕심, 이 모든 욕심이 다 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합리화시켰던 모든 것들도 산산조각이 되어 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딸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구나 라는 죄책감에 한참을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엄마 밑에서 참고 기다려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은 내 안의 방치되었던 문제의 뿌리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의문들이 시원하게 뚫렸으며, 앞으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도 알게 해 준 나의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였지만 이 시간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도, 굳게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의 생명수가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들어 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 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김지선 성도(C강남공동체)



저는 새로운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3개월이 좀 넘어가는 성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20대 중, 후반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다 30대 중반, 남동생의 죽음 이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려 두지 않으시고 작년 한 해 미국 연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였고, 귀국 후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새로운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잡은 손을 다시 놓기 싫어 새가족 교육을 얼른 이수하고, 순 배정을 받았습니다. 커피브레이크 같은 조의 자매님이 마더와이즈 과정을 강력 추천해 주셨고, 육아휴직 3개월이 끝나기 전에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작업들을 할 때 제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내려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더와이즈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체면을 위해 아이를 통제하는 독선적인 엄마였고, 특히 아이의 학업에 대한 통제를 하며 아이의 성공을 통해 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동안 나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던 돌덩이 같은 부담들이 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의 삶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 제 본성으로는 딸을 잘 양육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하였고,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딸을 지도하고 욕심의 길을 걸었던 저의 탐욕들을 가지치기 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해서 오늘도 아이가 제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부끄러운 모습에 회개하고 자책하는 저이지만, 앞으로는 제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저를 온전히 내려놓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주는 부모가 되고, 아이가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저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신 어머니처럼 저도 아이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중보 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머니의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 엄마인 나를 먼저 깨뜨리시는 하나님

이기화 집사(W강남공동체)



마더와이즈를 알기 전, 저는 이 과정이 전업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토요일 과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른 일정은 재보지도 않은 채 이끌리듯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메마른 마음을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 초청장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양육하며 매일 거칠게 흔들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낯선 말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다가도 분노가 앞섰고, 아이와의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며 자책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지쳐갈 때쯤, 저는 제 자신을 말씀 안에서 다듬고, 하나님께서 ‘엄마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포도나무의 원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열심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제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본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지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저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지으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제 소유가 아닌 독립된 한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 아이만의 속도와 성품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로 아프게 잘라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배우며, 제 속에 감추어진 조급함과 비교의식, 그리고 ‘좋은 엄마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우상’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줄 수 없는 사실에 무력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은 마더와이즈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의 눈물 어린 중보기도 속에서 아이는 무사히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제게 ‘가장 아프고도 고마운 가지치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과 가정에 허락하신 사춘기라는 이 훈련의 시간들이, 결국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인 나’를 먼저 깨뜨리시고 더 성숙하게 빚어가는 광야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뜯어고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마더와이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위로는, “너는 엄마이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한 나의 귀한 딸이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역할에 눌러 있고 지냈던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보배로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울며 기도해 준 사랑하는 목사님과 5조 조장님과 조원님들, 그리고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자유를 향한 여정

김인경 성도(W서초공동체)



마더와이즈 자유과정 공지가 났을 때, 두 자녀가 만 20세, 16세로 꽤 커서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얻고 또한 자유에 대해 알고자 하여 본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 놀랐으며, 한 주가 다시 5일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진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득 부담감을 안고 첫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조는 조장님을 포함 4명이었는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각자의 나이도 자녀들의 나이도 비슷하여 동일한 고민이 있고 대화도 잘 통할 것 같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마더와이즈가 처음이고 6S(Subject, Short, Simple, Specific, Silent, Small Groups) 기도도 처음이어서 긴장했지만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면 아멘만 해도 된다는 설명에 시험을 보러 온 것 같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편하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 기도를 듣고 아멘 해주시는 마더님들에게 큰 힘을 얻었으며, 제 기도제목에 대해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신 것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 주 동안 다루게 되는 주제들에 대한 담당 목사님의 강의와 주제에 맞는 목사님의 간증은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첫 주 1일 차부터 주어진 본문을 읽으며 언급된 성경을 찾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묵상

이므로 주어진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훈련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자료를 읽어보며 내용을 정리하고, 성경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며 마더님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제는 어느 하루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양동이를 세상의 인정과 육신의 욕구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를 교만한 육신이나 수동적인 육신 등 여러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육신의 절벽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모든 것으로 맡겨야 하는데 절벽 위에 그대로 있지는 않은지 등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죄된 옛사람에 머물러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떠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화평, 온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죄된 육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회개하며 나의 육신적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2026.  
07

# 성경속으로 간증

04

1. 김도영 성도(E서초공동체)
2. 박다해 성도(W강남공동체)
3. 안선영 성도(우면공동체)
4. 이영주 성도(E강남공동체)
5. 정지혜 성도(S강남공동체)
6. 조무경 성도(우면공동체)



## 성경 까막눈의 고백 : 조각조각 흩어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다.

김도영 성도(E서초공동체)



저는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제 속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오며 익숙해진

기준들이 많이 남아있고, 성경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였기에 성경을 읽을 시간에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 13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오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보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실패와 좌절을 맞보고, 집 나갔던 '겸손'이라는 의미도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며, 기도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다리고 있었던 '성경속으로' 과정의 일정을 후보에서 확인하였지만, 새로운 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일지 불분명한 상태였기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로부터 "같이 듣지 않을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시간이 있겠어?"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포기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시할 수 없을 기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첫 주 강의를 시작되기 전, 약 70페이지가 넘어가는 첫 주 내용을 예습하면서 힘들지만,

마치 어릴 적 역사 소설을 읽던 기분으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성경책을 읽어보자' 하고 시작했다가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저였는데, 비로소 창세기 이후의 성경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성공했다 라는 점만으로도 나를 뿌듯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듣는 중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순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같습니다. 주일말씀을 예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엔 앞 뒤 배경을 몰라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순예배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던 것 같은데, 성경속으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앞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머리에 그려지기 시작했고, 교재에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도 조금씩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퍼즐의 대략적인 완성본을 보고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이, 퍼즐은 한 조각을 맞춘 후 주변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 같이, 성경을 접하는 순간순간,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과, 연결점이 생겨나는 것 같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한 QT의 의미를 알아가며, 과정의 이름처럼 제가 성경 속으로 한걸음 내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출 퍼즐이 산더미 같이 많지만, 이런 시작을 잘 이끌어 주셔서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부모로서 시작한 성경 공부

박다해 성도(W강남공동체)



저는 요즘 재인이 엄마로 불리고 있는 박다해라고 합니다. 매주 재인이를 데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얌전한 아이가 웅알이를 시작

하고 책상을 치는데 재미를 들이니 제 이기심으로 다른 분들 강의 듣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만 같아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장님과 순원분들, 울 때마다 재인이를 예쁘게 봐주시는 목사님과 팀장님, 조장님과 조원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주중 오전에 열리는 여러 강의들은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들을 수 없었는데 재인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기회가 생겼으니 성경속으로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도 재인이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바울서신이 쓰인 옥중시대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 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이 시작되기 전, 친구와 중간기 '팩스 로마나'를 통해 전도여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

고 부끄럽지만 소년지서와 바울서신은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번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강의 내용을 복기하며 대화하다 보면 모태신앙인 우리 부부의 알팍한 성경적 지식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를 위한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속으로 강의를 통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계속 배워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레위기에서 여러 제사의 방법을 배운 뒤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아갈 때 승리했던 설교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인 사무엘의 일생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강의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복습되고 있습니다. 성경속으로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며 주일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님이 이끄시는 항해

안선영 성도(우면공동체)



저는 2025년 하반기, 26년간의 전쟁터와 같았던 대기업 직장생활을 퇴사 후, 오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나아가고자 새로운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커피브레이크'와 'CES 교육'을 거쳐, '성경속으로'까지 양육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된 곳이 바로 새로운교회였습니다. 2017년, 새로운교회에서 드렸던 첫 새벽예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한홍 담임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제 삶의 큰 위로이자 격려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시간을 통해 누린 은혜와 회복은 참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도독고양이처럼 홀로 은혜를 속삭이던 9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새로운교회의 새가족으로 정식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열정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목사님들 덕분에 성경 전체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고, 조원들과 진솔하게 삶의 구석구석을 나누며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26년간 처절한 경쟁 속에서 쉽 없이 달려오느라 지쳐있던 제게, 10주간의 '성경속으로' 여정은 달콤한 위로였으며, 하나님

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믿음을 다시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강의를 통해 접한 "방주에는 방향기도, 돛도 없다"는 짧은 한 문장은 그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이라는 배의 유능한 항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26년의 노하우와 사회적 경험들이 제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지 않거나, 생각한 속도만큼 진전되지 않을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이제는 제 노하우와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권의 이양'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지혜와 노력이 멈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항해가 시작됨을 믿으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이제 제 삶의 조종석을 기쁘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서는 것, 웃고 우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에, '성경속으로' 강의와 4조 조원들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섬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다시 내 삶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영주 성도(ε강남공동체)



올해 저는 CES 교육과 함께 성경속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신앙의 기초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CES 교육이 제 믿음의 기본 교리와 신앙의 뼈대를 다시 세워준 시간이었다면, 성경속으로 강의는 친구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제 삶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오신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국에서 홀로 유학하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독교 홈스테이를 통해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뒤 결혼 후 질병의 문제를 만나고, 아이를 갖기 위한 긴 치료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며 저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제게 성경속으로 강의는 제 삶을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

권자이시며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닫고 붙들게 했습니다. 또한 탄식과 슬픔조차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속으로 강의를 통해 진짜 회복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무너진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며 제게 남은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보다 크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반복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제 힘으로 버틴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가장 약한 자리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이어가며, 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 보석 같은 말씀을 발견한 시간

정지혜 성도(S강남공동체)



새로운교회에 2025년 9월부터 출석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성경 속으로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것에 익숙하고 25년도에도 성경 1독을 하며 나를 성경책과 친숙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보석 같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비로소 깨닫는 흥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계사의 역사가 성경과 연결되는 것을 보며 그동안 무심코 성경 속 기적이나 에피소드들을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단군신화처럼 신비로운 설화와 같은 이야기로 여기고 역사와 분리해서 무조건 믿지는 않았나 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다양한 목사님들이 성경의 파트를 나누어 준비해 오신 강의를 들으며 지식만 채워지는 게 아닌 늘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채워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싸움을 싸우는 저에게 매주 성경을 통한 메시지로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일맥상통하게 기록하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바쁘게 하며 목요일 오전시간을 통째로 비우는 건 엄청 큰 결단이었다고 순간순간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하고 중요한 일정들이 생겨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두고 성경속으로를 수료하는 것에 집중하여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게 출석했을 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는 감동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성경속으로의 10주 과정은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귀한 섬김으로 도와주신 목사님, 스태프들, 매주 귀한 강의 준비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하나님만이 저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며

조무경 성도(우면공동체)



최근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사로 섬기고 싶다는 소중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CES'와 '성경속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매주 강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한 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치료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다시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더 깊이 알고 싶은 갈증이 생겨 혼자 주석도 찾아보고 유튜브의 다양한 성경 설명 영상들도 챙겨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공부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속으로' 과정은 저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배경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의 수업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사와 성경을 연결해 주시는 대목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평소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 세계사 공부를 참 좋아합니

다. 하지만 성경 속 인물들과 세계사 속의 사건들은 명칭부터 배경까지 늘 괴리감이 느껴져 하나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을 통해 성경이 실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움직였는지를 배우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 특강에서 접한 과학적·지리학적 증거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방주 테마파크에 가는 것이 꿈이라 관심이 많았는데, 노아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저 또한 그런 통로로 쓰임 받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아직 몇 주의 강의를 더 남았지만, 매주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치유이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강의도 성실히 임하여, 제가 만난 하나님과 이번 수업에서 배운 탄탄한 성경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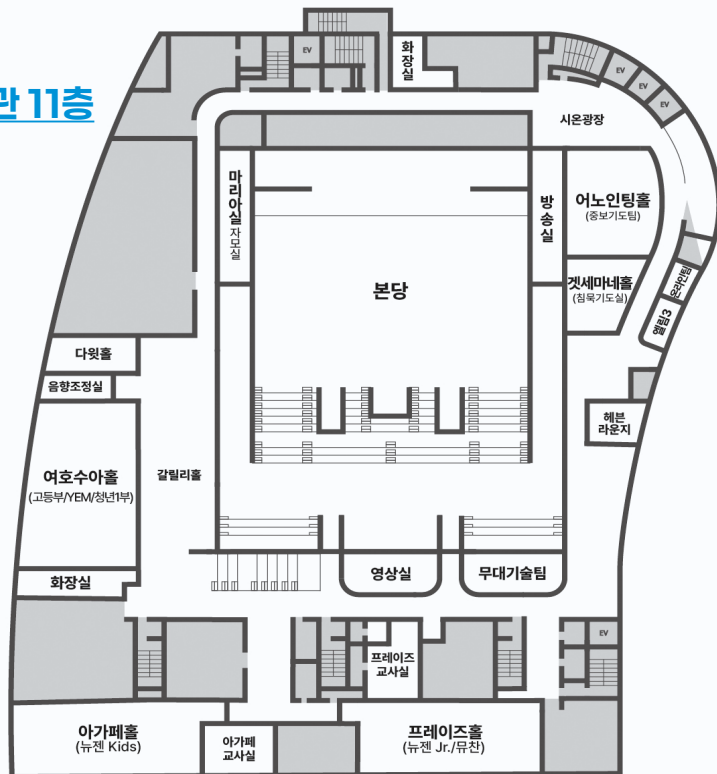
# 새로운교회 새 성전 층별 안내도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버 라이프  
영관 10층/11층, 패션관 1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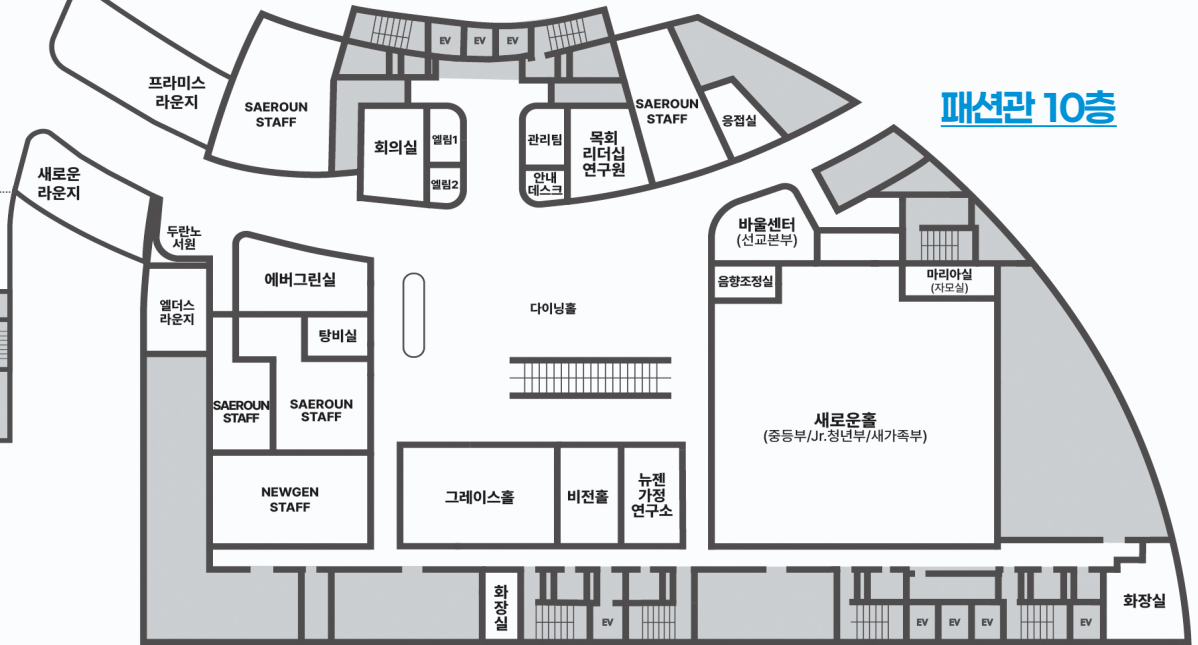
영관 10층



영관 11층



패션관 10층



## 새 성전 입당 후 주일예배 시간 안내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시
-------------	------------------	-------------

7.5(주일)부터 / 가든파이버 영관 10층 새로운교회 본당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on page 114.

---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on page 115.



Lined writing area for notes.

# 뉴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 뉴젠 Junior (10-13세, EM)

6/26(금)-28(주일) | S하우스

26(금) 오후 2시-9시 30분, 27(토) 오전 9시-오후 9시 30분

## 뉴젠 Kids (7-9세, EM)

7/11(토)-12(주일) | 영관 10층, 11층

11(토)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미취학 연합 (영아·유아·유치부)

7/18(토)-19(주일) | 영관 10층, 새로운홀

18(토) 오전 10시-오후 3시

## 학령기 연합 (아동·유년·초등부)

7/31(금)-8/2(주일) | 본당, 영관 10층, 새로운홀

31(금), 8/1(토) 오전 9시 30분-오후 8시 30분(무박)

## YEM (중·고등 EM)

7/31(금)-8/2(주일) | 여호수아홀

31(금) 오후 1시-8/2(주일) 오후 2시 30분

## 청소년 (중·고등부)

8/7(금)-9(주일) | 여호수아홀, 새로운홀

7(금) 낮 12시 30분-8(토) 오후 9시 30분

문의: 이성훈 목사, 카톡 ID: saeroun0906

Wednesday Prayer Worship



## 7월 수요일기도예배 은혜

7/1 이승호 목사

7/8 백은실 권사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7/15 이준희 목사

7/22 조은영 목사

7/29 강현구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장소 새로운홀(가든파이프 패션관 10층)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새성전 입당 기념 특채

# 미라클랜드 *Miracle Land*

7.7(화) - 7.18(토) | 오전 6시  
새로운교회 영관 10층 본당

Miracle Land

7.7 | 화 | 에덴: 기쁨의 땅 (창 2:4-14)

7.8 | 수 | 에덴: 사람이 경영하게 하신 땅 (창 2:7-9 & 2:15-19)

7.9 | 목 | 베들레헴: 은혜의 빵집 (룻 1:19-22)

7.10 | 금 | 베들레헴: 거룩한 반격의 시작 (마 2:1-12)

7.11 | 토 |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대상 11:4-9 & 시 122:1-9)

7.14 | 화 | 예루살렘: 사랑하고 지켜야 할 도시 (대상 11:4-8 & 시 122:1-9)

7.15 | 수 | 길갈: 역사의 터닝 포인트 (수 4:1-9)

7.16 | 목 | 길갈: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 (수 4:1-9)

7.18 | 토 | 갈릴리 가버나움: 미라클 랜드 (사 9:1-2 & 눅 4:31-44)

Saeroun  
church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로 66 가든파이버 라이프 영관 10층 새로운교회 본당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http://www.saeroun.net)